

5명

한화에어로 폭발 사망

6,246억

쿠팡 개인정보 과징금

1,000곳

끼임사고 긴급점검

10%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이달의 포커스

FOCUS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 제조 현장 중대재해와 3중 책임 리스크

6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했다. 관할 고용노동청은 특별감독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방산·정밀 제조 특유의 폭발 위험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다.

왜 중요한가. 이번 사고는 제조 현장의 리스크가 단일 손해로 끝나지 않고 **재물손해 · 인명(형사·민사)책임 · 조업중단**이라는 세 갈래로 동시에 확산됨을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처벌과 별개로, 유가족 손해배상, 제3자 배상, 특별감독에 따른 작업중지로 인한 기업휴지 손실이 함께 발생한다.

◆ 기업보험 관점 시사점

제조 사업장은 **재산종합보험(화재·폭발)** 단독으로는 리스크를 다 이전하지 못한다. 조업중단 손실을 메우는 **기업휴지담보(BI)**, 근로자 사상에 대응하는 **단체상해·근재보험**, 대외 배상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CGL)**, 경영진 형사·행정 리스크에 대응하는 **임원배상책임(D&O)**까지 묶어 점검해야 실질적 대비가 된다.

주요 사건 리스크 점검 — 사고·재해

건설현장 중대재해 다발

리스크 높음

6월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토사붕괴·교량 지지대 붕괴·철근붕괴·추락 등 사망사고가 집중됐다. 반복 사고는 작업중지·특별감독으로 공기 지연과 추가비용을 유발한다.

→ 근로자재해 · 영업배상 · 발주자/원청 배상책임 · 건설공사보험 점검

반도체 공장 불화수소 누출 — 대규모 대피

리스크 높음

청주 반도체 공장 가스로 화재로 불화수소가 누출돼 다수가 증상을 보이고 대규모 대피가 이뤄졌다. 화학물질 누출은 인명·환경오염 책임으로 확산되며, 당국은 반도체 업체 불소 누출 집중점검에 착수했다.

→ 화학물질배상 · 환경오염배상 · 기업휴지 담보 점검

공장 화재 인접동 연소 확대

리스크 중간

화성 부품공장 화재가 인근 공장으로 번져 건물 다수가 소실됐다. 복합단지·인접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은 연소확대 위험까지 고려한 방재·보험 설계가 필요하다.

→ 재산종합(연소확대) · 구내폭발 · 기업휴지 담보 점검

출처: 고용노동부, 언론 보도 종합 (2026.06)

▣ 주요 사건 리스크 점검 — 배상·사이버·리콜

개인정보 유출 대란 — 대형 플랫폼 연쇄

리스크 높음

대형 이커머스·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랐고,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내부자 위협과 데이터 관리 소홀이 대형 재무손실로 직결된 사례로, 유출 통지·집단분쟁·손해배상 리스크가 뒤따른다.

→ 사이버배상 · 개인정보보호배상 · 대응비용 특약 · D&O 점검

제조물 리콜 잇따라 — 자동차·전자·식품

리스크 중간

6월 자동차(이비온), 디지털 프로젝터(벤큐 GV31 자발적 리콜), 식품(미광식품) 등 여러 업종에서 리콜이 이어졌다. 설계·품질 결함에 따른 리콜은 회수비용과 소비자 배상으로 직결되며, 자발적 리콜도 기업 이미지·비용 관리가 필요하다.

→ 생산물배상(PL) · 리콜비용 담보 점검

살충제·식품 회수 — 규제강화발 리콜

리스크 주의

살생물제품 승인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살충제가 판매제한·회수됐고, 식품·전자제품 자발적 리콜도 이어졌다. 규제 변경에 따른 재고 처리·유통중단 손실 대비가 필요하다.

→ 생산물배상(PL) · 리콜비용 · 회수 관련 손실 점검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언론 보도 종합 (2026.06)

▣ 업종별 체크포인트

제조 · 화학

폭발·누출 시 재물+기업휴지+환경배상 다중 리스크. 위험물 공정 BI 한도를 실제 조업중단 손실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화학물질배상 확인.

건설

끼임·추락·붕괴 중대재해 집중 점검기. 근재 보상한도, 발주자·원청 배상책임, 건설공사보험(CAR) 담보 범위 재확인.

물류 · 유통

개인정보·결제데이터 보유 증가로 사이버 리스크 급상승. 사이버배상 한도 증액과 유출 대응비용·법률비용 특약 점검.

전자 · 정밀

공급망 중단·설계결함 리콜 리스크. PL·리콜비용 담보와 공급망 기업휴지(CBI) 확장담보 검토.

7월 계절 리스크 — 폭염·전력 과부하

SEASONAL

폭염기 전기화재 · ESS 배터리 · 온열질환

전기 과부하 화재

냉방 전력 피크로 변압기·배선 과열. 공장·창고 전기화재 급증기.

ESS·리튬배터리 발열

고온에 배터리 열폭주 위험 상승. 인수 까다로운 담보 — 보유 고객 점검 필요.

폭염 온열질환

현장·제조 근로자 온열질환 산재. 야외·고열 작업장 각별 주의.

→ 전기적위험 담보 여부 · ESS/리튬배터리 화재 담보 · 폭염 온열질환 근재·산재 점검 (대상: 전기·전자, 화학, 금속·기계)

참고: 계절 리스크 — 여름철 전력 피크·폭염 경보기 대비 항목

이달의 규제 변화

9월 시행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 대표자 책임 법제화

유출 확인 전이라도 통지 의무 발생, 대표자에 총괄 관리의무 부여. 초기대응 비용·평판 리스크 증가, D&O 연계 필요.

입법예고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상향 (매출 기준 강화)

반복·중대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데이터 보유기업 재무 리스크 급증, 사이버보험 한도 증액 필요.

7월 시행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전면 시행

화학·생활용품 제조사 승인 의무화. 미승인 제품 유통 시 PL·행정처분·회수 리스크.

주목할 보장 트렌드

기술·R&D 리스크의 보험화

연구개발·시제품·첨단장비, 이제는 보험으로 관리한다

첨단기술 산업이 커지면서 연구개발 실패, 시제품 결함, 고가 첨단장비 손상처럼 전통 보험이 다루기 어려웠던 위험을 보장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R&D 손실보험·첨단장비 종합보험이 제도화되는 추세다. 제조·기술기업은 일반 재산·배상보험만으로는 R&D·시제품·특수장비 리스크가 비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유 자산과 연구 단계에 맞춰 담보 공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참고: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제648호

이달의 보험 점검 포인트

- ✓ 제조 사업장: 재산종합보험에 **폭발·기업휴지(BI)** 담보 포함 여부, 조업중단 손실 대비 보상한도 적정성 확인
- ✓ 데이터 보유 기업: **사이버배상·개인정보보호배상** 한도 증액 및 유출 통지·대응비용 특약 점검
- ✓ 건설·제조 현장: **근로자재해·단체상해** 보상한도와 원청·발주자 배상책임 담보 재점검
- ✓ 제조·유통사: 설계결함 리콜 대비 **생산물배상(PL)·리콜비용** 담보, 규제변경 회수손실 대비
- ✓ 경영진: 규제 강화에 따른 **임원배상책임(D&O)** 담보 범위 및 형사방어비용 특약 확인